

'빛살' 드러내려 새기고 써요

산문박의 禪

서예가 김양동 씨

“깨쳤을때 뇌리를 치는 것은 섬광이듯
삼라만상은 해를 닳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려는 거죠”

두달전, 언론에서는 경쟁이나 하듯 한 서예가의 전시회를 소개했다. 모두들 '달 장르, 각(刻)-서(書)-화(畫) 경계를 넘나드는 서예의 혁명'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고(書) 그리는(畫)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를 종이한장 위에 담았을 뿐입니다. 김교수의 스승인 철봉 이기우(鐵農 李基雨)선생은 글씨를 배우겠다는 그에게 '먼저 서예를 터득하고 전각을 배우라' 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먹에 대한 이해(용묵), 붓의 탄력에 대한 이해(운필) 그리고 종이에 대한 이해를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자법(字法) 장법(章法) 도법(刀法)을 알게 되었고 기교를 즐기되 함부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입문 26년만에 첫 개인전

그의 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이 투영된 작품이 있다기에 전시장을 찾았다. 김교수가 선보인 50여점의 작품들은 제작기법이 특이했다. 물 먹인 한지를 구겨다가 말려놓은 것에 그림과 글씨

刻-書-畫 경계 넘나들며 한국적 토속미 표현 정적인 '떡'과 동적인 '붓'의 조화 '墨禪의 경지'

를 쓴 것 같아 서예작품이라 말하기는 어렵지 어색함이 있었다. 실제로 김교수의 작품은 단순히 붓으로 글씨를 쓴 것이 아니었다. 먼저 용기급은 흙으로 빛은 도판(陶版)에 조각이나 그림을 새겨 가마에 굽는다. 그리고 그 위에 1백년은 족히 넘는 한지를 덮어 탁본을 뜨고 요철부위에 채색하여 형상을 만들어 글씨를 곁들인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고대신화, 전설, 민속, 설화, 원시신앙 및 상고사 대문학과 노장사상, 불교사상 등을 작품소재로 선택해 한국적인 토속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가봐도 작가의 연구와 실험정신을 느끼기에 흥분한 작품들이었다. 더구나 이렇듯 주목받는 전시회가 김교수의 서예입문 2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개인전이어서 더욱 이채로웠다. "내 작품을 보고 모두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기고 쓰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단지 새기고(刻) 쓰

고(書) 그리는(畫)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를 종이한장 위에 담았을 뿐입니다. 김교수의 스승인 철봉 이기우(鐵農 李基雨)선생은 글씨를 배우겠다는 그에게 '먼저 서예를 터득하고 전각을 배우라' 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먹에 대한 이해(용묵), 붓의 탄력에 대한 이해(운필) 그리고 종이에 대한 이해를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자법(字法) 장법(章法) 도법(刀法)을 알게 되었고 기교를 즐기되 함부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빛살을 드러내는 일 이었습니다. 신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고자 했던 김교수가 '빛살'을 찾은 것은 또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실패 겁내면 옹졸해지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 또한 부처가 그러하다. 가장 '간단다운 이' 부처가 발하는 광배가 말해주지 않는가. 고대신화나 전설 민속들은 김교수에게 있어 빛살의 새로운 표현일 뿐이었다. 누군가 김교수에게 "언제 그림을 배웠소"라고 물기에 "석기시대 사람들이 데생 배워서 했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원시인의 생각은 사되지 않고 순수합니다. 삼라만상은 해를 닳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의 어둠을 털어내는 것이 수행이죠. 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것도 원시인이 빛을 갈구하듯 해야합니다." 김교수는 가장 불교적인 색을 먹빛



이준엽 기자

제가 아프면 스님도 아프신지요

문 불법에서는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가르칩니다. 스님들 중에도 불이법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제가 뺨을 맞았는데 스님이 아프니까? (이성태·서울 종로구 내수동)

답 유마거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고 하겠지요.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세계 전체를 한그루의 나무라고 생각 해봅시다. 각각의 생명체를 잎이라고 하겠는데 그 잎새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빛을 가리게 된다면 중생끼리 다투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따지고보면 그 잎새들은 다 한뿌리에 의지하고 있으니 둘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치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투는 격인데 만약 그렇게 다투다면 하나임을 모르는 탓이겠지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근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처사님이 아프면 스님도 아프지요. 그러나 상으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픈 중에도 아프지 않음이 있으니 마음은 깊어 고요하고 묵묵한 깨달음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픈 눈물이 항상 흐르는 것은 또

흔히들 이 공부를 하면 남다른 신통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인 경지에서는 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다 내살림이니 거슬리고 부딪히고 뛰어나고 흔들려야 할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여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할나할나 다가오는 모든 세상일과 하나인체로 저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유인이라 함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듯이 전체가 내 살림이니 거칠게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내세울 게 있다면 무엇이 불연속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나'라는 관념이 없으니 그냥 전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 합니다. 자유인이라면 세상 자유다 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절 운영이 잘될지 걱정입니다

문 30년 불자입니다. 이제 회향하는 뜻에서 사찰을 지어 어느 스님께 시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짐찍어 놓은 절터가 좋은 자리인지, 지어놓고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양영문·경기 가평군 가평읍)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불교대학 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 둘이 아닌 깨달음입니다. 마음바탕은 적었지만 하나하나 일에 응하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깊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중도라는 뜻이요.

아무튼 이 공부를 하시면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눈을 안으로 돌리지 않고 밖으로 돌리면 불이법 마저도 번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과 일이 뿌리를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만 서로를 의식한다면 왜 부딪치느냐, 왜 빛을 가리느냐 하고 다투겠지요. 불이법은 상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상의 근본이 되는 한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근본을 알면 상 또한 둘이 아니지요. 경계를 둘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위대한 부처님 세계에 동참하는 길이요 세속적인 이익이 아닌 크나큰 이익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유인이라 어떤 경지입니까

문 스님께서는 늘 마음공부를 통해 자유인이 되고 하십니까. 자유인이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준영·경남 사천시 축동면)

답 해탈의 경지를 어찌 말로 이르리까. 그러나 이왕 물으셨으니 한마디 하지요. 중생이 늘 보고 듣고 겪으며 살아가는 이 윤회법의 세계와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위법의 세계를 다 보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하! 차원이 다른 또하나의 세계가 있나보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선 안됩니다. 두 세계를 다 본다는 함은 하나를 본다는 뜻입니다.

좋은 절터, 나쁜 절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가르침을 따르셨다면 그런 것쯤은 이제 아실 때도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지를 걱정하신다는데 그 또한 욕심이나 버려주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비록 거지라도 하루 세끼는 먹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욕심 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자극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교계신문에 부적광고가 실리는데...

문 신문에 나는 광고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는 불교언론자가 부적 광고 따위를 실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전 광고엔 무슨 도예품 개발에 관한 선전이 실렸는데 그 속에 유골을 모시면 왕생극락에 자손발복·만병통치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타종교인이 그런 광고를 보고 우리 교계 신문을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하니 신문사의 상업성이 지나친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천·경남 진해시 용원동)

답 불교언론도 마땅치 않은 일을 했고 교계 한편에서도 그런 일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밝히라고 가르치셨는데 고작 기록에 치우쳐서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시정되어야 옳겠지요.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와 감삼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중 국 어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준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대학교 불교제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